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Nanhoeomokji* and *Jeoneoji*

韓美鏡 (Han, Mi-Kyung)*

◁ 목 차 ▷

1. 서 언	3.2 문자의 차이
2. 연구의 배경	3.3 오류의 발생
2.1 기사의 조사	3.4 수정과 변경
2.2 기사의 분석	3.5 양자의 오류
3.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	4. 결 언
3.1 구성과 편성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서유구의 대표적인 물고기관계문헌인 『난호어목지』와 『전어지』를 대상으로 조선닷컴 홈페이지상의 관련 기사를 조사 분석하고 나아가 두 문헌의 강어부분을 서지적으로 비교하였다.

기사의 분석 결과 잘못된 문헌의 인용, 서명의 오기, 내용의 그른 해석 등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 대한 정확한 서지적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거나 일부 기존의 선례를 따르거나 참고함으로 발생된 문제로 생각된다.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관계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과 편성 외에 강어부분을 비교한 결과 51개 어류 중에서 280개의 차이와 문제를 발견하였다. 즉, 1) 문자의 차이, 2) 오류의 발생, 3) 수정과 변경, 4) 양자의 오류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난호어목지』는 서유구가 편찬하고 『전어지』는 아들 서우보가 교정편찬에 참여하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수정 및 변경된 반면 일부 또 다른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난호어목지』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므로 분석되었다.

要語: 蘭湖漁牧志, 물고기관계문헌, 서우보, 서유구, 佃漁志

*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mkhank@korea.com)

접수일: 2010년 12월 10일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Nanhoeomokji* and *Jeoneoj* both of which are Seo You-gu's representative works on fish. For this purpose, the articles which appeared in the Chosun.com website and mentioned these books were examined and analyzed. Furthermore from both *Nanhoeomokji* and *Jeoneoji* the contents related to river fish were drawn and bibliographically compared.

First, an analysis of those website articles revealed serious errors such as quotation of wrong literature, wrong indication of titles, misinterpretation of contents, and wrong mistranscription. The causes for such errors seem to be lack of accurate bibliographical research on *Nanhoeomokji* and *Jeoneoj* and simple use of or reference to inaccurate previous quotations.

The comparison between *Nanhoeomokji* and *Jeoneoj*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280 differences and problems with relation to 51 kinds of fish.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1) difference in characters, 2) occurrences of problems, 3) correction and amendment, and 4) problems commonly found in both literatures. This analysis confirms that when Seo You-gu's son Seo Wu-bo participated in editing *Jeoneoji*, based on *Nanhoeomokji* first compiled by his father, he corrected and revised some of *Nanhoeomokji*'s errors, but still repeated some existing problems, and even caused new problems.

Key words: Fish Related Documents, *Jeoneoji*, *Nanhoeomokji*, Seo Wu-bo, Seo You-gu

1. 서 언

물고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 역사기록물들을 조사해보면 대략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물고기의 명칭이나 산지를 주로 다루다가 19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백과사전이 편찬되면서 종합적인 백과사전 내의 부문으로 또는 전문적인 백과사전으로 편찬되었다. 다양한 물고기관계문헌 중 서유구¹⁾의 『林園十六志佃漁志』(이하 「전어지」)와 『蘭湖漁牧志』는 현대에 물고기 관련 정보제공에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역사기록물로 두산백과사전의 연어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 “난호어목지에 년어(年魚), 속어로는 ‘연어’라 한다고 기록하였다. 전어지에서는 계어(季魚)라 하였다. 한자어로는 연어(年魚 또는 連魚)라고 적었다 ….”²⁾와 같이 두 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마치 다른 종류의 문헌으로 인용되고 있으니 이는 두 문헌의 관계가 연구되지 않은 까닭이다. 한편 네이버백과사전의 피라미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 “… 난호어목지에는 필암어(畢巖魚)라 하여 형태를 설명하였으며, 산란기에 미적색의 혼인색을 띤 수컷을 불거지라 하여 적새어(赤鯿魚)로 기록하고 있다 ….”³⁾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실제 난호어목지에는 필암어가 아닌 飛鱈魚와 赤鯿魚의 2종의 피라미로 기술되어 있으니 이는 인용이 잘못된 사례이다.

특히 일간지를 통하여 일반적인 물고기관련 옛 명칭이나 관련내용 등에 대한 참고정보가 제공되는데 그중 조선닷컴의 신문기사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분석한 결과 두 문헌에 대해 전혀 다른 문헌으로 인용하거나 同書異名으로 인용하거나

1) 徐有集(1764-1845)는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으로 『攷事新書』를 편찬한 할아버지 대 제학 徐命膺과 『海東農書』를 편찬한 아버지 이조판서 徐浩修의 가학을 이어 특히 농학에 큰 업적을 남겼다. 1834년(순조 34)에 진라감사로 있으면서 구황식물인 고구마 관련 『種蔬譜』를 펴 보급하였다. 기초적 연구로 농업기술과 농지경영을 다룬 『杏浦志』, 농업경영과 유통경제에 대한 『金華耕讀記』 등을 저술하였다. 이후 자신의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여러 국내외의 농서 등 800여종을 참조하여 만년에 농업을 집대성한 『林園十六志』를 완성하였다. 이밖에도 『蘭湖漁牧志』, 『鷓鴣志』, 『鏤板考』 등이 있다.

2)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d=&k=&inqr=&indme=&p=1&q=%BF%AC%BE%EE&masterno=112726&contentno=112726>.

3) <<http://100.naver.com/100.nhn?docid=184142>>.

또는 이전 사람의 인용에 대한 분석 없이 답습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고기에 대한 역사적 기록내용을 현대에 인용함에 주로 참고되는 물고기관계문헌으로 서유구가 편찬한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난호어목지』(BC古朝68-42)와 규장각의 『전어지』(奎6565)를 대상으로 서지학적 비교분석을 진행하되 서유구의 가계, 두 문헌에 대한 판본조사와 내용분석 등은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의 배경으로 조선닷컴의 관련기사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위하여 인터넷검색법과 인용문헌분석법을 사용하였고,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분석은 문헌연구법과 역사연구법 및 서지학적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관계와 차이가 분명해지고, 나아가 학술적 연구와 생활상의 물고기관련 역사적 정보제공에 하나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역사기록물을 근거로 물고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기사의 관련내용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일보의 홈페이지인 조선닷컴을 대상으로 하였다.

2.1 기사의 조사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홈페이지에서 전어지, 난호어목지, 서유구, 임원십육지(임원십경제지) 등의 서명 또는 저자명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되는 검색단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어지⁴⁾

‘전어지’를 키워드로 한 검색결과 ‘해삼’과 ‘견지낙시⁵⁾’의 총 2건이 검색되었다. (표 1 참조) 해삼은 「전어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고, 견지낙시의 경우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 소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낙시법의 경우 「난호어목지」는 기술하고 있지 않고 「전어지」에만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문헌의 인용이다.

2) 난호어목지

‘난호어목지’를 키워드로 한 검색결과 ‘빙어’, ‘은어’의 총 2건이 찾아졌다(표 1 참조). 빙어와 은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난호어목지를 인용하고 있다. 이는 「전어지」가 완성본인데 「난호어목지」를 인용한 경우이다.

3) 서유구

‘서유구’를 키워드로 한 검색결과 10건의 ‘전어’, 2건의 ‘고래’ 및 ‘빙어’의 총 13건이 검색되었다(표 1 참조). 그중 가장 많은 기사가 검색된 전어의 경우, 실제 조사해보면 대체로 「전어지」와 「난호어목지」에 내용이 동일하게 기술되고 있으나 검색된 기사에는 모두 임원경제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빙어의 경우 또한 「난호어목지」나 「전어지」가 아닌 임원경제지로 기술하고 있다. 고래의 경우 ‘난호어물치’라고 기술하여 「난호어목지」에 대한 서명자체의 오기가 발견되었다.

4) 임원십육지 또는 임원십경제지

‘임원십육지’ 또는 ‘임원경제지’를 키워드로 한 검색결과 2건의 ‘꽁치’와 ‘고래’의 3건이 검색되었다(표 1 참조). 우선 고래의 경우 임원십육지를 인용하고 있으나 실제 「전어지」에는 관련기록이 없고 「난호어목지」에 “껍질과 고깃살은 끊어서 기름을 얻는데, 경의 큰 것은 수백斛(곡: 10말의 곡량)의 기름을 얻으니, 한편

4) <<http://search.chosun.com/search/news.search>>.

5) 견지낙시의 경우 ‘전어지’ 이외에 ‘난호어목지’와 ‘서유구’라는 키워드로도 검색되었으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편리를 위하여 ‘전어지’ 부분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으로 이득이 많다고 한다.”와 같이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우이다. 쫄치의 경우는 ‘이규태의 코너’에서 2001년에는 『임원십육지』에 기록으로 없는 것으로 잘못 기술하다가 이후의 다른 기사에서는 『임원십육지』의 기록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쫄치는 『전어지』와 『난호어목지』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표 1> 조선닷컴 수록기사

	검색어	내 용	비 고
전 어 지	해삼	서유구는 ‘전어지’에서 ‘해삼’은 바다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몸을 이롭게 하는 생물이라 할 정도로 예로부터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⁶⁾	
	견지 낚시	…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그 후의 기록에는 서유구(1764-1845년)가 쓴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와 전어지(佃漁志)에 견지낚시가 소개돼 있다. 책에는 견지낚시를 ‘홀리는 낚시(流釣法)’ ‘밀밥을 …’ ⁷⁾	• 난호어목지에 소개되어 있지 않다.
난 호 어 목 지	빙어	예로부터 흔히 ‘뱅어’로도 불려온 실치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죽으면 몸 색깔이 하얗게 변한다 해서 ‘백어(白魚)’, ‘난호어목지’에서는 ‘빙어(氷魚)’라고 소개돼 있다. ⁸⁾	• 난호어목지의 인용
	은어	서유구의 ‘난호어목지’(1820)에는 “양주 왕상탄(현재의 왕숙천)의 은어가 가장 맛이 좋다”고 했으니 한강에도 은어 때가 소상했음을 알 수 있다. 책에는 “등뼈 사이에 지방이 묻쳐 있어 맛이 담백하며 비린내가 없다. 살아있을 때 오이향이 난다. … 소금으로 간한 것을 먼 불에 은근히 구워먹으면 맛과 향이 좋다”고 했으니 그 맛과 먹는 요령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⁹⁾	• 난호어목지의 인용
서 유 구	고래	울산의 포경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10여 종의 고래가 등장하는 등 포경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다. 이 땅에서 ‘고래’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맨 처음 사용했다. 저서 ‘난호어물치(생물도감)’에서였다 … ¹⁰⁾	• 인용문헌의 오기

6)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18/2008121801422.html>.

7)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8/10/2005081077041.html>.

8) <http://travel.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1/2010042101770.html>.

9)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6/29/2005062977009.html>. 참고로 『전어지』에는 楊洲 玉山灘으로 되어 있고 『난호어목지』에는 王山灘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전어지』가 오기한 경우이다.

10) <http://travel.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8/2009052800917.html>.

<http://travel.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1/2008052100317.html>.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연구

	검색어	내 용	비 고
서유구	빙어	... 조선시대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에는 '이 고기는 한겨울인 동지 앞뒤로 나타나며 입춘이 지나면 빛깔이 점차로 푸르게 되고 드물어져서 얼음이 풀리면 사라진다고 쓰여 있다. ¹¹⁾	• 임원경제지로 기술
	전어	대표적인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서유구는 자신의 저서 '임원경제지'에서 전어는 사는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어(錢魚)라고 했다"고 기록해 놓았다. ¹²⁾	• 임원경제지로 기술
임원십육지	고래	... 조선조에 들어서는 고래가 죽어 바닷가에 표착하면 관에서 백성을 징발, 도끼로 수염과 가죽 그리고 살을 잘라내어 이를 백성의 등짐으로 실어 날라 천금을 챙기고 백성은 얻는 것이 없었다고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는 적고 있다. ¹³⁾	• 실은 난호어목지에 기술되어 있다. • 내용의 오류
	공치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낫선 고기로, 박물지인 중국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나 우리나라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등에 공치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먹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생선임을 알 수 있다. ¹⁴⁾	• 실은 전어지와 난호어목지에 모두 기술되어 있다.
		가을철에 많이 나는 공치는 몸이 칼 모양으로 길어 추도어(秋刀魚), 추광어(秋光魚), 공어(公魚)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임원십육지'에서도 공어(貢魚), 공치어, 공치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 ¹⁵⁾	

2.2 기사의 분석

이상과 같이 조선닷컴 사이트에서 전어지, 난호어목지, 서유구, 임원십육지(임원경제지)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실제 검색되는 관련내용 부분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어지, 난호어목지, 서유구, 임원십육지(임원경제지) 등의 서명 또는 저자명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된 단어는 해삼, 견어낙시, 빙어, 은어, 고래, 전어, 공치의 총 일곱 가지이다.

둘째, 일곱 가지 검색단어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해삼 1건, 견어낙시 1건,

11) <http://san.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31/2007073100473_3.html>.

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03/2009090301948.html>. 참고로 그 외의 기술 내용도 대부분 동일하다.

13)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370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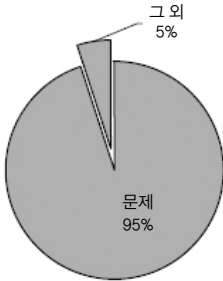
14)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101270379>.

15)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8/2008102800945.html>.

빙어 2건, 은어 1건, 고래 3건, 전어 10건, 쫄치 2건으로 총 20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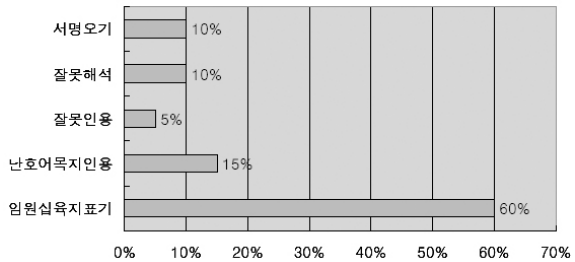
셋째, 그중 내용과 서명의 인용에 문제가 없는 해삼의 경우를 제외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참고로 고래와 쫄치의 경우 하나의 기사에 각 2개씩 문제가 발생되었다(그림 1과 표 1 참조).

- 1) 임원경제지나 임원십육지로의 언급은 총 12건(빙어 1건, 전어 10건, 고래 1건, 쫄치 2건)이다.
- 2) 완성본인 「전어지」 보다 「난호어목지」를 인용한 경우는 총 3건(빙어 2건, 은어 1건)이다.
- 3) 「난호어목지」로의 문헌의 잘못인용은 총 1건(견지남시 1건)이다.
- 4) 내용자체의 잘못해석은 총 2건(고래 1건, 쫄치 2건)이다.
- 5) 서명 자체의 오기는 총 2건(고래 2건, 난호어물치)이다.



<그림 1> 기사인용의 문제

<표 1> 기사인용의 상세분석



종합적으로 물고기관계 기사를 살펴보면 「난호어목지」나 「전어지」와 같은 정확한 서명보다는 임원경제지나 임원십육지라는 일반적인 서명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12건으로 60%나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완성본인 「전어지」 보다 「난호어목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3건으로 전체 중 15%이다. 그 외에 정확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잘못된 문헌을 인용하거나 내용자체의 잘못 해석하였고, 서명 자체를 오기하고 있는 경우는 총 5건으로 전체 25%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확한 서지적 연구나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선례를 따르

거나 참고함으로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중 특히 잘못된 문헌의 인용, 서명의 오기, 내용의 그른 해석 등은 심각한 오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고기 관계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역사적 참고자료로서의 기본적인 서지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

1827(순조 27)년에 徐有矩(1764-1845)가 편찬한 「林園經濟志」는 일명 「林園經濟十六志」로서 종합적인 백과사전이다.¹⁶⁾ 그중 卷37-40이 「佃漁志」이다. 국내의 고려대학교(대학원 E1-A34, 육당E-A20), 국립중앙도서관(古031-6), 규장각(奎6565)과 해외는 일본(大阪府立圖書館, 東洋文庫, 今西文庫)과 미국(캘리포니아 淺見文庫) 등에 소장되어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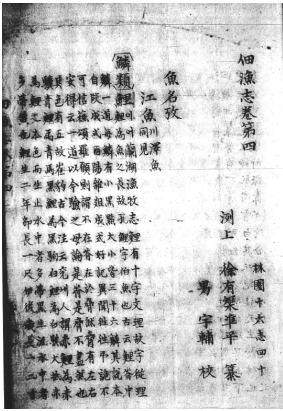
임원십육지는 16지 이외에 여러 부록을 수록하고 있다.¹⁸⁾ 그중 「蘭湖魚牧志」는 「전어지」보다 앞서 기술된 것으로 1820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사본 1종(한古朝 68-41)이 소장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난호어목지」(그림 3 참조)와 규장각 소장의 「전어지」(그림 2 참조)를 대상으로 구성과 편성 외에 魚名攷 江魚 부분의 원문상의 오기 및 내용 등의 차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비교분석은 다음과 같다.(부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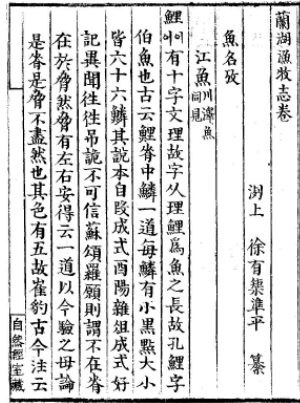
16) 완질본의 경우 113卷 52책으로 本利志, 灌畦志, 藝畹志, 晚學志, 展功志, 魏鮮志, 佃漁志, 鼎俎志, 瞻用志, 保養志, 仁濟志, 鄉禮志, 遊藝志, 怡雲志, 相宅志, 倪圭志의 16개 志로 분류되어 있다.

17) 해외의 경우는 李盛雨(『韓國食經大典』(서울: 향문사, 1981), 85)를 참조한 노기춘, “『林園十六志』 引用文獻 分析考(1): 農學分野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3), 379를 제참조하였다.

18) 서유구의 조부인 徐命膺이 저술한 「攷事十二條」, 「箕子外紀」, 「緯上」 등 3권과 생부인 徐浩修가 저술한 「海東農書」, 그리고 본인이 저술한 「金華知非集」, 「金華耕讀記」, 「杏浦志」, 「蘭湖漁牧志」, 「鷓鴣志」, 「鏤板考」 등이 실려 있다.



<그림 2> 전어지



<그림 3> 난호어목지

3.1 구성과 편성

저자사항과 전체 구성 외에 「전어지」의 「난호어목지」 인용, 한글명과 한자명, 일부 물고기의 누락 등 여섯 가지의 구성 및 편성관련부분으로 다음과 같다.

1) 「난호어목지」의 권수제면의 저자사항 관련 기록을 보면 ‘測上 徐有渠準平纂’이라 하여 편찬자가 서유구임을 밝히고 있다(그림 3 참조). 「전어지」의 경우 제4권 권수제면에 ‘測上 徐有渠準平 纂, 男 宇輔 校’라 하여 서유구가 편찬하고 아들 서우보가 교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그림 2 참조). 특히 「전어지」가 교정될 때 서유구도 참여하였는지 서우보가 단독으로 교정하였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임원십육지」 편찬시 아들 이우보가 전반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전어지」 역시 기본적으로 서우보가 교정편찬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전어지」의 경우 제1편 牧養, 제2편 漁釣 등의 항목을 다루어 목축과 수렵과 어로 등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제3편 魚名攷 부분에서 물고기의 이름과 모양 등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어명고는 강어와 해어 및 잡찬으로 구분하고 다시 鱗類, 無鱗類, 介類로 세분하고 있다. 반면 「난호어목지」의 경우 어명고만을 다루고 있으며 크게 강어와 해어로만 구분하고 있다.

3) 「전어지」의 경우 「난호어목지」 인용을 표기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하여 보면 모두 9종의 어류에서 발견된다. 즉, 강어와 해어를 인류, 무인류 및 개류로 분류 소개하면서 각 첫 번째 등장한 어류 6종과 잡찬의 論海魚未驗과 論華產未見의 총론부분의 도입에서 그리고 論東產未詳의 경우 擔羅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난호어목지」 인용을 표기하고 있다. 즉, 51개의 강어 중 「난호어목지」를 앞서 워 인용을 표기하고 있는 경우는 3개로 전체 5.9%이다.

4) 한글명의 경우 51종의 물고기 중 16종의 물고기의 한글명에 차이가 발견되었다.¹⁹⁾ 그중 ‘ㅈ’를 ‘ㅊ’로, 한자어를 한글로, ‘ㄱ’를 ‘ㅋ’로, ‘· (아래하)’를 ‘ㅊ’로 기술한 것과 같은 경우는 「난호어목지」보다 「전어지」가 후에 기술된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5) 한자명의 경우 뱀장어(鰻鱺魚와 緜鱺魚와 게(蟹와 蟹)의 2종에서 발견되었다. 게는 이자를 쓴 경우이고 뱀장어의 경우만이 한자명에 차이가 보이는데 이는 「전어지」로 기술되면서 발생한 오기의 한 예로 보인다.

6) 「전어지」는 일부 물고기의 기술을 누락하고 있다. 즉 鮮章魚(모장어), 赤魚(발강이), 葛多歧魚(쌀담이)가 그러한데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종합적으로 구성의 차이, 「난호어목지」 인용표기, 한글명과 한자명의 변화 등은 「전어지」가 서우보에 의해 교정편찬하면서 적용된 변화의 일부로 생각된다. 다만 「난호어목지」 인용의 경우는 각 분류별 도입부분의 극히 일부 어류에만 표기하여 「난호어목지」를 인용한 것처럼 기술한 이유는 알 수 없다.

19) 鮮節(남작어)와 鮮節(남작어), 餘項魚(여항어)와 餘項魚(연목이), 眼黑魚(눈검정어)와 眼黑魚(눈검정어), 斤過木皮魚(씩적위)와 斤過木皮魚(씩적위), 迎魚(마지)와 迎魚(마디), 柳魚(버들치)와 柳魚(버들치), 袈婆魚(가스어)와 袈婆魚(가사어), 菊息魚(국식이)와 菊息魚(국식어), 鮎(머여이)와 鮎(미역이), 鰻鱺魚(뱀장어)와 緜鱺魚(뱀장어), 鱸絲魚(통자기)와 鱸絲魚(조기), 文鞭魚(그리치)와 文鞭魚(그리치), 龜(거북)와 龜(거북), 蚌(가장자근조기)와 蚌(가장자근조기), 馬刀(몰십조기)와 馬刀(몰십조기), 蝸贏(달팽이)와 蝸贏(달팽이)가 그렇다.

3.2 문자의 차이

문자 차이가 발견된 경우는 총 62개이다. 이는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그림 4 참조).

1) 이자. 이는 다른 글자이나 같은 뜻의 글자를 사용한 경우이다.²⁰⁾ 이는 총 40개(58%, 전체중 14.2%)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중 최다의 경우는 ‘계해(蟹와 蟹)’로서 29번이나 등장한다. 그러나 일부 이자를 사용하다가도 『난호어목지』와 일치하는 글자로 쓰기도 하였는데, 꺾지의 ‘溪’와 빙어의 ‘氷’이 그렇다.

2) 통용자. 이는 다른 글자이나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통용자의 대표적인 예는 ‘案’과 ‘按’을 들 수 있는데, 『난호어목지』는 주로 ‘案’을 『전어지』는 주로 ‘按’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각하다’, ‘상고하다’의 의미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할 때 사용한다. 이외에 야회어의 ‘徃’과 ‘往’도 있으며, 이 경우는 총 6개(8.7%, 전체중 2.1%) 등장한다.

3) 정자. 『난호어목지』는 종종 약자로 필사하고 있는데 전어는 이를 정자로 바꾸었다. 대표적인 예는 ‘從’과 ‘从’, ‘草’와 ‘艸’ 등으로 『난호어목지』가 약자인 ‘从’, ‘艸’ 등을 사용하고 있고, 『전어지』는 이를 수정 변경하여 정자인 ‘從’, ‘草’ 등을 사용하고 있다.²¹⁾ 이외에 피라미, 갈겨니, 참마자 등에도 약자대신 정자 ‘蠅’을 기술하고 있다. 이 경우는 모두 13개(18.8%, 전체중 4.6%)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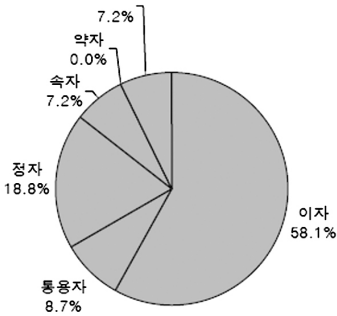
4) 속자. 이는 『난호어목지』가 본자를 사용하고 『전어지』가 속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는 ‘闊’과 ‘濶’로서 『난호어목지』가 정자인 闊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전어지』는 속자인 ‘濶’을 사용하고 있으며, 꺾지, 쏘가리 등에서 보인다. 이외에 야회어에는 窳에 대하여 『전어지』가 糞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5개(7.2%, 전체중 1.8%) 등장한다.

20) 대체로 시내계(溪와 谿), 개구리와(龜와 龜), 얼음빙(氷과 冰), 서울경(京과 京), 널빤지판(板과 版), 치마군(幫과 裱), 계해(蟹와 蟹) 등이 등장하고 있다. 사례의 두 자 중 앞의 것이 『난호어목지』에 사용된 것이고 후자가 『전어지』에 사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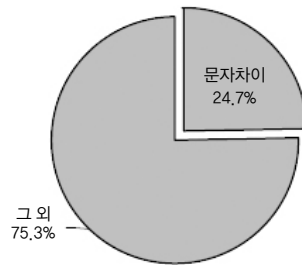
21) ‘艸’의 경우 『난호어목지』의 경우도 모두 약자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정자인 ‘草’를 사용하고 있다.

5) 약자. 이는 「난호어목지」가 정자를 사용하고 「전어지」가 약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는 계에서 보이는 ‘撥’의 경우로 5번(7.2%, 전체중 1.8%) 등장한다.

이처럼 두 문헌의 원문에 있어서 문자의 차이는 이자와 통용자의 사용 외에 약자를 정자로 바꾼 경우 외에 오히려 「전어지」에 약자나 속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문자의 차이는 총 69개로 전체 280개의 사례 중 24.7%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4> 문자의 차이



<그림 5> 전체 중 문자의 차이

3.3 오류의 발생

「전어지」가 교정 편찬되면서 새로이 발생한 오류로는 총 63개가 발견되었다. 이는 여섯 가지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다(그림 6 참조).

1) 누락. 이는 내용의 전개상 필요한 일부 단어 및 내용이 누락된 경우이다.²²⁾ 총 19개(30.2%, 전체중 6.8%)가 등장하고 있다.

22) 쏘가리의 黑, 싱어의 形色과 不滿, 은어의 産, 야회어의 脆와 最(이 단어의 경우는 내용의 정리로 볼 수도 있다), 가사어의 南, 황복의 肉과 魚, 그리치의 尾, 계의 一鰲大, 蟳蜃, 謂, 자라의 其, 가장작은조개의 有 등이 그렇다. 특히 웅어의 경우는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2) 오기. 이는 「전어지」가 일부 단어 및 내용을 오기하고 있는 경우이다.²³⁾ 특히 내용상의 잘못된 글자 오기 외에 인용문헌인 「本草綱目」, 「和漢三才圖會」, 「星湖僊說」 등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에도 오기가 발견되었다. 총 37개(58.7%, 전체중 13.2%)가 등장하고 있다.

3) 삭제. 이는 「전어지」가 일부 단어 및 내용을 삭제하고 있는 경우이다. 송어의 「凡」과 「俗呼乾卵」 외에 모래무지의 「糶」이 그렇다. 총 4개(6.3%, 전체중 0.4%)가 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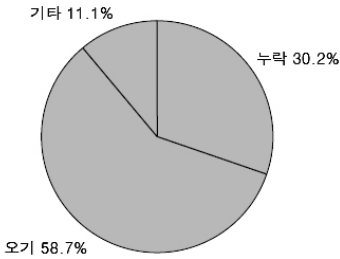
4) 잘못추가. 이는 「전어지」가 단어를 잘못 추가한 경우이다. 붕어에서 보이는 「補」 등으로 2개(3.2%, 전체중 0.7%)가 그러하다.

5) 중복추가. 이는 「전어지」가 단어를 중복하여 추가한 경우이다. 참마자에서 보이는 「江」 1개(1.6%, 전체중 0.4%)가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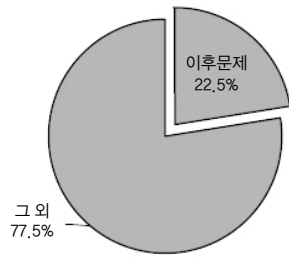
6) 고자. 이는 「전어지」가 일부 단어를 고자로 필사한 경우이다. 독지계에서 보이는 「심(深)의 고자」 1개(1.6%, 전체중 0.4%)가 그러하다.

이상은 「전어지」를 교정 편찬하면서 오히려 오기나 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필사 또는 전사하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체 중의 하나로 이러한 경우는 총 63개로 전체 280개 중 22.5%이다(그림 7 참조).

23) 피라미의 繡(→繡)과 磁(→磁), 꺾지의 潤(→潤)과 菰 및 鱸, 용어의 形(→刑), 싱어의 之(→而), 은어의 羨, 꺾지의 澁과 澁, 살치의 春(→脊)과 繩(→繩, 즉 繩), 독지계 堤(→堰)와 班(→斑), 紋(→文), 가사어의 紋, 메기의 緹, 뱀장어의 縵(→縵)과 縵(→縵), 황복의 鰓(→鰓), 동자개의 軋, 빙어의 鈔(→抄), 거북의 寶人(→寶文), 게의 蝸(→蝸), 日(→名), 蠟(벌레이름 짐)(→蠟(벌레이름 짐)), 蠟(벌레이름 짐)(→蠟(계절)), 蠟(벌레이름 짐)(→蠟(박쥐짐)), 之(→則), 그리고 달팽이의 彥(→產) 등이 그렇다. 괄호안의 ‘→’ 다음에 기술된 것은 난호어목지가 옳은 경우이다.



<그림 6> 오류의 발생



<그림 7> 전체 중 오류의 발생

3.4 수정과 변경

「전어지」를 교정편찬하면서 수정 및 변경한 경우로 이는 단어나 내용 등이 추가되거나 삭제 또는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총 110개가 발견되었다(그림 8 참조).

1) 추가. 이는 「난호어목지」에는 없는 단어이거나 내용으로 「전어지」에 추가된 경우이다. 그중 단어의 추가는 가장 많은 경우는 ‘又(또는 又²⁴⁾)’와 ‘어명’의 추가이다. 「전어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 어류를 소개하면서 51종의 어류 중 거북을 제외한 모든 강어에 대하여 ‘又’나 ‘又+어명’을 앞세우고 해당 어류를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사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난호어목지」와의 차별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는 총 67개(60.9%, 전체중 23.9%)²⁵⁾가 발견되었다.

이상의 ‘又’와 ‘어명’의 추가 외에도 「전어지」에는 단어나 일부 내용 등을 추가하고 있다. 우선 단어의 경우 13개(10.9%, 전체중 4.6%)²⁶⁾가 「난호어목지」에는

24) 又(사사로이 취한 님)은 又와 같은 의미인지 사사로이 취하여서 사용한 것인지 자세하지 않아 우선 구별하지 않았다.

25) 전체 51개의 어류 중 ‘又’와 어명의 추가는 17이며 그중 율영이는 일부 내용 추가후 어명을 추가하고 있다. ‘又’만의 추가는 31개이며, 그중 하나(끄리)는 又 앞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어명만 추가 기록한 경우는 잉어와 매키 2개이고, 예외적으로 거북의 경우 又나 어명 모두 추가기록하고 있지 않다.

26) 붕어의 也와 所, 흰줄납줄개의 衣, 多, 피라미의 泳, 끄리의 或呼, 魚喜, 又, 독지개의 鱗, 국식어의 身, 自, 동자개의 無鱗, 계의 此也와 같다.

없으나 「전어지」에 추가되어 있다. 그중 흰줄납줄개의 多, 피라미의 泳과 其, 독지계의 鱗, 국식어의 自 등의 5개(4.5%, 전체중 1.8%)의 경우 「난호어목지」의 원문에는 없으나 이후 목서로 삽입기술하고 있다.

내용 추가의 경우 잉어, 송어, 피라미, 흰줄납이개의 4개(3.6%, 전체중 1.4%)가 그렇다. 그중 가장 내용의 변화가 많은 것은 송어로 다음과 같다.

「난호어목지」

“송어 또는 치는 … 강과 하천변, 바다에 다 살고 있는데, … 강에서 사는 것 중에서 가장 크고, 또한 아름다운 것이다. … 어린 치어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4, 5월이 되면 자식이 배에 꽂 차서 … 풍속에는 건란이라 부른다.”²⁷⁾

「전어지」

“송어 또는 치는 … 강과 바다에 다 살고 있는데, … 강에서 사는 것은 빛깔이 곱고 산뜻하며, 간혹 잡힌다. 바다에서 사는 것은 진가 2종이 있는데, 진자는 강에서 서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빛깔만 조금 거칠고 가자는 빛깔이 검고 눈도 또한 검다. 대체로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크고, 또한 아름다운 것이다. … 작은 것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4, 5월이 되면 알이 배에 꽂 차서 … 작은 것은 속칭 모장어라고 부르는데, 납인은 또 도어라고 하니 이는 치어의 새끼를 말하는 것이다. 3, 4월경에는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한데 이를 미어라 이른다. 점점 성장하여 겨울에 이르면 1척 남짓되고, 2, 3년을 지나면 5, 6척 되는 것도 있다.”²⁸⁾

이처럼 「난호어목지」의 내용을 일부정리하거나 「난호어목지」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보이는 것은 「전어지」가 이후에 교정 편찬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거나, 적당한 표현으로 다시 기술하거나 이후 조사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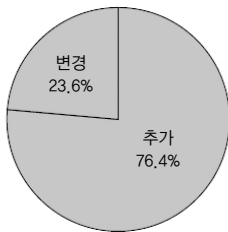
27) “鯿 송어 … 凡江浦川辺通海處 皆有之 身圓 頭扁 骨軟 肉緊 … 蓋江魚中最大 … 是但見兒鯿耳 四五月 有子滿復 … 俗呼乾卵.”

28) “鯿 송어 又鯿 … 江海皆有之 … 產於江者 色鮮潔 而罕得 產於海者 有真假二種 眞者與江產無異 而色稍纒 假者 色黑而目赤黑 蓋魚之最大 … 是但見小者耳 四五月 有卵滿復 … 其小者 俗稱牟章魚 南人 又稱同魚 是鯿魚之子也 三四月間 大如拇指 謂之米魚 以次漸長 至冬則長尺餘 經二三年 有長五六尺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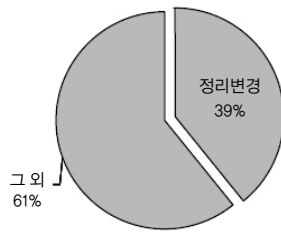
이는 「난호어목지」에는 없는 단어 또는 내용으로 「전어지」에 추가된 경우로
 야나 어명을 추가한 경우 67개 외에 단어 추가 12개 그리고 내용추가 4개로 총
 84개(76.5%, 전체중 30%)가 발견되었다(그림 5 참조).

2) 변경. 이는 「난호어목지」의 단어나 일부 내용을 「전어지」가 내용에 맞게
 정리 변경한 경우이다. 단어의 변경 23개(20.9%, 전체중 8.2%)²⁹⁾가 그러하며,
 이는 상술의 오기와는 다르게 내용 전개상 올바른 단어로 변경한 경우이다. 계의
 경우 가장 많은 단어가 변경되었으며, 그중에 棹(흔들도)의 경우 棹(노도)로 4번
 이나 변경하였다.³⁰⁾ 내용의 변경은 누치, 은어, 참중고기의 3개(2.7%, 전체중
 1.1%)가 변경되어 보다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거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변경의 경우는 단어변경 23개와 내용변경
 3개로 총 26개(23.6%, 전체중 9.3%)가 발견되었다(그림 8 참조).

이상으로 「전어지」를 기술하면서 단어나 일부 내용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 또
 는 내용이 정리되는 등의 경우는 총 110개로 전체 280개 중 39.8%이다(그림
 9 참조).



<그림 8> 수정과 변경



<그림 9> 전체중 수정과 변경

29) 송어의 경우 江浦川辺通海處(→江海), 江魚中(→魚之), 兒鯿(小者), 子(→卵), 계의 경우 棹(흔들도)(→棹(노도)4번), 劔(둔할일)(→劔(칼검)), 書(→說), 筭(산가지, 셀산)(→算(셀산)), 團(→圓), 응어의 경우 他(→佗), 杏(→幸), 열목이의 경우 跡(→迹), 뱀장어의 경우 二三(→數), 미꾸리의 경우 皆(→者), 황복의 경우 吐(→肚), 가장작은조개의 경우 中(→間), 흰줄납줄개의 경우 三四(→二三), 피라미의 경우 二(→三)가 그렇다. 괄호 안이 「전어지」가 변경한 단어이다.

30) 「난호어목지」를 살펴보면 이후 棹(노도)로 옳게 기술하기도 하였다.

3.5 양자의 오류

「난호어목지」와 「전어지」 모두 오류가 있는 경우는 특히 두 문헌 다 단어 등을 오기하였거나 누락한 경우로 총 34개이다(그림 10 참조).

1) 양자 오기. 「난호어목지」의 경우 「本草綱目」, 「和漢三才圖會」, 「西陽雜俎」, 「星湖僊說」, 「兩航雜錄」 등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용문헌에 의거하여 일부 단어의 사용 등에서 「난호어목지」와 「전어지」 두 문헌에서 모두 오기된 경우가 찾아진다. 이러한 사례는 25개(73.5%, 전체중 8.9%)³¹⁾가 발견되었으며, 「난호어목지」 이후에 교정 편찬된 「전어지」가 「난호어목지」의 오기를 정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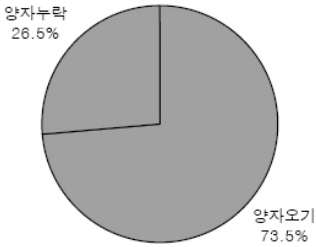
2) 양자 누락. 이는 양자 오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단어의 사용 등에서 「난호어목지」와 「전어지」 두 문헌에서 모두 누락된 경우가 찾아진다. 이는 9개(26.5%, 전체중 3.2%)³²⁾가 발견되었으며, 이 또한 양자 오기와 마찬가지로 「난호어목지」 이후에 교정 편찬된 「전어지」가 「난호어목지」의 누락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여 발생한 문제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문자의 차이나 「전어지」로 교정 편찬되면서 일부 단어나 내용의 추가, 변경 그리고 새로운 오류의 발생 외에 「난호어목지」와 「전어지」 모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총 34개로 전체 280개 중 12.1%이다(그림 11 참조). 이는 특히 두 문헌 다 단어 등을 오기하였거나 누락한 경우로 이를 통하여 「전어지」가 「난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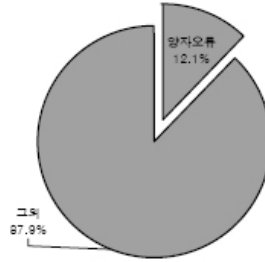
31) 송어의 경우 ㉠故字從縹와 ㉡粵人呼爲, 本草綱目に 의거→故字從縹와 粵人訛爲, 붕어의 경우 ㉢陸佃云鮓. 本草綱目に 의거 鮓→鯽魚, ㉣次吹如星은 삭제요, 흰줄납줄개 地, 和漢三才圖會에 의거→池, 피라미 繡, 和漢三才圖會에 의거→鑪, 모래무지 脥→脣, 쏘가리 芥, 本草綱目に 의거→藟, 피라미(둘 다 오기) 癩→癩 흑류, 꼬리 ㉤脥→脣, 독지계 脥→脣, 가물치 ㉥禮, 本草綱目 의거→鱧 ㉦㉧醴, 本草綱目 의거→鱧, 빙어→最, 계의 경우 ㉨强, 兩航雜錄 의거→彊; ㉩㉪㉫朴, 兩航雜錄에 의거→樸; ㉬蕩, 星湖僊說 의거→薄; ㉭㉮蚌→蚌; ㉯蜂→蜂; ㉰花, 西陽雜俎에 의거→苑, 本草綱目は 善化 등이 그렇다. 이 부분은 김명년 역의 「佃漁志」 일부를 참조하였다.

32) 쏘가리의 織(本草綱目に 의거), 독지계의 魚好(西陽雜俎 廣動植鱗介篇에 의거), 뱀장어의 鰻(本草綱目 의거), 드렁호리의 細(本草綱目 의거)와 疾, 계의 耳와 爲(星湖僊說 의거) 및 削과 又(本草綱目 의거)가 그렇다. 이부분도 김명년 역의 「佃漁志」 일부를 참조하였다.

목지」를 교정 편찬할 때 답습하면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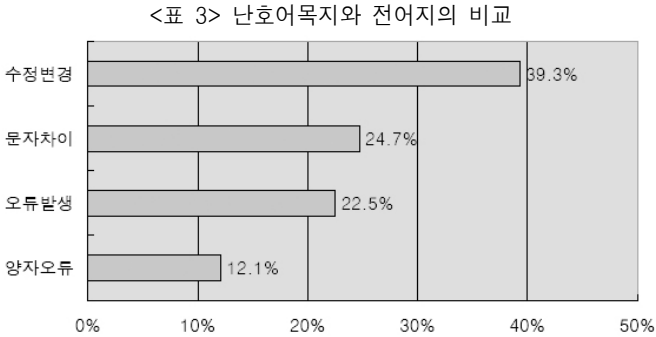


<그림 10> 양자의 오류



<그림 11> 전체 중 양자의 오류

이상으로 구성과 편성 부분 이외의 어명고 강어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상의 <표 3>과 같이 강어부분의 원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발견된 280개의 문제와 차이를 살펴보면 「난호어목지」의 일부 단어나 내용의 변경된 경우는 약 40%이며, 문자의 경우 약 25%는 이자나 통용자, 정자 등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어지」를 기술하면서 오히려 약 22%의 누락, 오기, 삭제, 잘못추가 등의 새로운 오류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이전에 「난호어목지」의 오류였던 인용문현상의 오기

나 누락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한 경우는 약 12%이다.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저자사항관련 기술을 보아 「난호어목지」는 서유구가 편찬하고 「전어지」의 경우 서유구의 편찬에 대하여 아들 서우보가 교정한 것이다. 즉, 이상의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결과 발견된 내용변경과 내용추가, 내용정리는 자주적 변경을 시도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전어지」를 기술하면서 누락, 오기, 삭제, 잘못추가라는 오류 또한 발생되었으며, 「난호어목지」의 오기와 누락이 「전어지」에도 반영된 것은 「난호어목지」를 답습한 결과로 보인다.

4. 결 언

본 연구는 서유구의 대표적인 물고기관계문헌인 「난호어목지」와 「전어지」를 대상으로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홈페이지상의 관련 기사를 조사분석하고 나아가 두 문헌의 어명고 중 강어부분을 서지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우선 현대적인 물고기관계 정보제공의 기사조사를 위하여 조선닷컴 사이트에서 전어지, 난호어목지, 서유구, 임원십육지(임원경제지) 등의 키워드로 실제 검색되는 어명 등의 기술내용 부분을 조사하였다. 기사의 분석 결과 잘못된 문헌의 인용, 서명의 오기, 내용의 그른 해석 등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는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 대한 정확한 서지적 조사나 문헌연구가 선행되지 않았거나 일부 기존의 선례를 따르거나 참고함으로 발생한 문제로 생각된다.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관계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난호어목지」와 규장각 소장의 「전어지」를 대상으로 강어부분의 51개 어류를 비교한 결과 1) 문자의 차이, 2) 오류의 발생, 3) 수정과 변경, 4) 양자의 오류 등으로 분석되었다. 즉,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결과 발견된 280개의 문제 중 약 40%가 단어나 일부 내용의 변경이며, 약 25%는 이자나 통용자, 정자 등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22%는 「전어지」를 기술하면서 발생한 누락,

오기, 삭제, 잘못추가의 오류이며, 특히 12%는 「난호어목지」의 오류였던 오기나 누락의 오류를 「전어지」가 그대로 답습한 경우였다.

종합적으로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 대하여 서유구의 편찬으로만 알려졌으나 저자사항 관련기술에 의하면 「난호어목지」는 서유구가 편찬하고 「전어지」는 서유구의 「난호어목지」를 아들 서우보가 교정 편찬한 것으로 「전어지」를 교정 편찬하면서 많은 부분 보다 더 정확하게 수정 및 변경하였으나 오히려 일부 오류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기존 「난호어목지」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이 이후 「난호어목지」와 「전어지」를 활용한 학술연구를 위한 서지적 연구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 두 문헌이 생활상의 물고기관련 역사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때 정확한 정보제공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蘭湖魚牧志』.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林園經濟志佃漁志』. 규장각소장본.

김근수. “한국실학과 명물도수학.” 『정신문화』 12(1982). 86-97.

김중빈. “魚譜類에 나타난 19C초의 수산물 어휘연구: 『茲山魚譜』(1814), 『蘭湖魚牧志』(1820), 『物名考』(1824?)의 수록 어휘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12(2004). 137-173.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노기춘. “『林園十六志』 引用文獻 分析考(1): 農學分野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3). 375-403.

박구명. “『우해이어보』·『자산어보』·『난호어목지』.” 『해양과문화』 제5호(2001. 4). 186-207.

- 서유구 저. 김명년 역. 『佃漁志』. 서울: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 李湫玉. “朝鮮末期魚蟹圖: 民畫를 중심으로.” 『古美術』 봄호(1988). 21-24.
- 정문기. 『韓國魚圖譜』. 서울: 一志社, 1977.
- 鄭文基. 『韓國魚譜』. [서울]: [商工部], 1953.
- _____. 『魚類博物誌』. 서울: 一志社, 1974.
-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 物名考.廣才物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한미경. “조선시대 물고기관계문헌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12). 237-269.
- EnCyber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index.html>>.

<부록>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³³⁾

	내용	비고
인 류		
잉어	鯉(이어) 有十字文理 故字③从理 … 鯉(이어) ①蘭湖漁牧志 ②鯉 有十字文理 故字③從理 … ④其小者 尾微尖而色赤 俗稱赤魚 或云是鯉子 殊不然 此別一種也	①원문: 蘭湖漁牧志 ②추가: 어명 ③정자: 從 ④내용추가
송어	鱈(송어) 其色鱈黑 故字②从③a縵 粵人③b呼爲子魚 … ④a凡 ⑤a江浦川辺通海處 皆有之 身圓 頭扁 骨軟 肉緊 … 蓋⑤b江魚 中最大 且美者也 … 是但見⑤c兒鱈耳 四五月 有⑤d子滿復 … ④b俗呼乾卵 鱈(송어) ①a又①b鱈 其色鱈黑 故字②從③縵 粵人③呼爲子魚 … ⑤a江海皆有之 身圓 頭扁 骨軟 肉緊 … ⑥a産於江者 色鮮潔 而罕得 産於海者 有眞假二種 眞者與江産無異 而色稍麤 假者 色黑 而目赤黑 蓋⑤b魚之最大 且美者也 … 是但見⑤c小者耳 四五月 有⑤d卵滿復 … ⑥b其小者 俗稱半章魚 南人 又稱同魚 是鱈魚之子也 三四月間 大如拇指 謂之米魚 以次漸長 至冬則長尺餘 經二三年 有長五六尺者也	①추가: a又;b어명 ②정자: 從 ③달다오기: a故字從縵와 b粵人呼爲, 本草綱目の거 → 故字從縵와 粵人訛爲 ④삭제: a凡;b俗呼乾卵 ⑤변경: a江浦川辺通海處→ 江海:b江魚中→魚之:c兒鱈→小者:d子→卵 ⑥a,b내용추가
격이정	鱸 거역정어 鱸 거역정어	난호어목지가 내용을 목으로 덧붙여 비교대상에서 제외
눈볼개	鱖(독너울이) 似鯉而口圓 … 故字尊從必 … 故字②a从②b必 … 鱖(독너울이) ①a又①b鱖 似鯉而口圓 … 故字②a從尊②b從必 …	①추가: a又;b어명 ②정자: a,b從
붕어	鮒(붕어) 古②曰鮒 今曰鯽 陸佃云③鮒 旅行④次吹如星 … 卽皆其一名 … 蜀本⑥艸云 … 沈括筆談云 … 鮒(붕어) ①凶古②田鮒 今曰鯽 陸佃云③鮒 旅行吹⑦a味如星 … 卽皆其一名⑤a也 … 蜀本⑥草⑤b所云 … 沈括⑦b補筆談云 …	①추가: 凶 ②오기: 曰→田 ③양자오기: 鮒: 本草綱目の 거→鯽魚 ④누락: 次 ⑤추가: a也;b所 ⑥정자: 草 ⑦잘못추가: a味:b補

33) ① 원문: 원문의 기술은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순으로 하되 두 문헌의 원문 비교 분석 결과 문제가 있는 곳을 위주로 기술하고, 그 외 부분은 줄임표(…)로 생략하였다. 내용상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② 진하게: 난호어목지 인용표시, 추가, 누락 등의 표시. ③ 밑줄: 이자, 정자, 속자, 약자, 단어나 내용의 변경 등의 표시. ④ 밑줄과 진하게: 내용변경 등의 표시. ⑤ 이탤릭체: 내용오기, 정정 등의 표시. ⑥ 괄호: 이후추가, 삽입추가 등의 표시. ⑦ 비교: 전어지에서 발견되는 「난호어목지」와의 다른 부분 위주로 하되 「난호어목지」와 「전어지」 두 문헌에서 모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양자오기’, ‘양자누락’ 등으로 기술하였다. ⑧ 비교항 목별로 숫자원문자 순으로 기술하고 같은 문제의 경우 다시 영어소문자원문자 순으로 기술하였다. 이 경우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내용 중 해당 부분에도 병기하되 누락이나 추가의 경우 두 전적 중 해당되는 곳에만 표시하였다. ⑨ 한글표제는 임의적인 것으로 정확하지 않은 경우 표기하지 않았다. ⑩ 일부 입력불가의 한자는 한글음으로 대체표기하였다.

	내 용	비 고
원줄 납줄개	魚年節(남작어) … 大者②三四寸 … 所謂青③④(衣)魚 … 皆③④ ⑤(多)以子生 … 新掘⑤地雨水停畜 ……	①추가: ④又:⑤어명 ②불일치: 三四→二三 ③추가: ④衣:⑤多:전,추가: 난,이후삼입추가:⑥本草 所謂魚旁鯢魚 ④양자오기: 地:和漢三才圖 會의거→池
	魚年節(남작어) ①④又①⑤鯢 … 大者②二三寸 … 所謂青③④ 衣魚 ③⑥本草 所謂魚旁鯢魚 … 皆③④多以子生 … 新掘④地雨 水停畜 ……	①추가: ④又:⑤어명 ②이자 溪谿 ③추가: ④泳:⑥其→난,이후 삼입추가 ④오기: ④繡:⑥磁:和漢三 才圖會의거→繡, 磁 ⑤양자오기: 繡:和漢三才圖 會의거→繡 ⑥불일치: 二→三
피라미	鯢(좁피리) 江湖②溪澗在處有之 … 浮③(泳)水上 … 甚疾倏忽如 飛 … 所謂不得③④(其)道 …如刀劔④⑤繡 故曰⑤繡鯢 … 意其 ⑥二物 … 以黑④⑤繡釋鯢 ……	①추가: ④又:⑤어명 ②이자 溪谿 ③추가: ④泳:⑥其→난,이후 삼입추가 ④오기: ④繡:⑥磁:和漢三 才圖會의거→繡, 磁 ⑤양자오기: 繡:和漢三才圖 會의거→繡 ⑥불일치: 二→三
	鯢(좁피리) ①④又①⑤鯢 江湖②溪澗在處有之 … 浮③④泳水上 … 甚疾倏忽如飛 … 所謂不得③④其道 …如刀劔④⑤繡 故曰⑤繡 鯢 … 意其⑥三物 … 以黑④⑤繡釋鯢 ……	①추가: 又 ②이자: ④溪谿:⑤龍:⑥龜:⑦ 水,冰 ③삭제: 雜 ④양자오기: 唇→唇 ⑤변경: 海→解
모래 무지	鯢(모리마즈) ②③溪澗江湖皆有之 … ③雜出於傳記 … 以其厚唇 如②⑤龜重 … 謂之重④唇 … ②③水⑤海潮流而上 ……	①추가: 又 ②이자: ④溪谿:⑤龍:⑥龜:⑦ 水,冰 ③삭제: 雜 ④양자오기: 唇→唇 ⑤변경: 海→解
	鯢(모리마즈) ①又②④溪澗江湖皆有之 … 出於傳記 … 以其厚唇 如②⑤龜重 … 謂之重④唇 … ②③冰⑤解潮流而上 ……	①추가: 又 ②오기: ④澗:本草綱目 의거 → 澗:⑥鼓:⑦魚側 ③통용자: 案,按 ④이자: 京,京
격지	杜父魚(좁마즈) 溪澗中小魚也 … 口②④潤 … ②⑤鼓浪作聲而逐 之 … ③案 正字通引魚經曰 … ②③鯰魚 … ④京魚 ……	①추가: 又 ②오기: ④澗:本草綱目 의거 → 澗:⑥鼓:⑦魚側 ③통용자: 案,按 ④이자: 京,京
	杜父魚(좁마즈) ①又溪澗中小魚也 … 口②④潤 … ②⑤鼓浪作聲 而逐之 … ③按 正字通引魚經曰 … ②③魚側魚 … ④京魚 ……	①추가: 又 ②정자: 澗 ③누락: 黑 ④양자오기: 계:本草綱目的 거→鬮 ⑤양자누락: 織:本草綱目的거
쏘가리	魚厥(소갈어) … ②闊腹 … 黃質③黑章 … 一名④계魚 … 如⑤糸 屬也 ……	①추가: ④鬮:⑤어명 ②정자: 澗 ③누락: 黑 ④양자오기: 계:本草綱目的 거→鬮 ⑤양자누락: 織:本草綱目的거
	魚厥(소갈어) ①④鬮①⑤魚厥 … ②潤腹 … 黃質章 … 一名④계 魚 … 如⑤糸屬也 ……	①추가: 鬮 ②오기: 形→刑 ③변경: 他→佗 ④누락 또는 삭제: ④⑤
응어	鱗魚(위어) 本草 … 如薄尖刀②形者合 … ③他如腮下 … 漢江之 幸州 … 按 爾雅曰 … ④⑤又案 農巖 … 余嘗據爾雅注 … 後考和漢 三才圖會云 … 又案史記 … 若東醫寶鑑 … ④⑤說見鱗魚	①추가: 鬮 ②오기: 形→刑 ③변경: 他→佗 ④누락 또는 삭제: ④⑤
	鱗魚(위어) ①鬮本草 … 如薄尖刀②刑者合 … ③佗如腮下 … 漢江之幸州 … 按 爾雅曰 … 若東醫寶鑑 …	①추가: ④鬮:⑤어명 ②누락: ④形色:⑤不滿 ③오기: 之→而
싱어	細魚(씨나리) ②④形色 … 長②⑤不滿數寸 … 卽葦魚③之子 …	①추가: ④鬮:⑤어명 ②누락: ④形色:⑤不滿 ③오기: 之→而
	細魚(씨나리) ①④鬮①⑤細魚 … 長數寸 … 卽葦魚③而子 …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연구

	내 용	비 고
누치	訥魚(누치), 形類鱈魚 … ②其名訥魚 方言也 未知在本草作何名	①추가: 凶
	訥魚(누치), ①凶形類鱈魚 … ②俗名訥魚	②내용의 변경
	魚年章魚(모장이)	
	赤魚(발강이)	전어지의 누락 또는 삭제로 비교대상에서 제외
은어	銀口魚(은구어) 鱗細 … 炙食香②美 … 王山灘 … 朝鮮國③產銀口魚 卽中國之銀條魚 ④蓋訟東醫寶鑑而誤者也	①추가: 凶 ②오기: 羨 ③누락: 產 ④내용변경
	銀口魚(은구어) ①凶鱗細 … 炙食香②羨 … 王山灘 … 朝鮮國③銀口魚 卽中國之銀條魚 ④此因沿 而誤者也	
열목이	餘項魚(여항어) … 人②跡罕到處者 …	①추가: ㉠凶:㉢어명
	餘項魚(연목이) ①㉠凶①㉢餘項魚 … 人②迹罕到處者 …	②변경: 跡→迹
두우쟁이	眉叟甘味魚(미슈감미) 身圓而飽 …	①추가: 凶
피라미	飛魚畢魚(날피리) 鱗白 …	
	飛魚畢魚(날피리) ①凶鱗白 …	①추가: 凶
피라미	赤鯿魚(불거지) 頭與身等 … 喜食③㉠蠅 釣用③㉢蠅爲餌 … 皆生疣④瘡 …	①추가: 又 ②내용추가 ③정자: ㉠b蠅 ④양자오기: 瘡→瘤
	赤鯿魚(불거지) ①又頭與身等 … ②而有青黑點 鰓亦微赤 … 喜食③㉠蠅 釣用③㉢蠅爲餌 … 皆生疣④瘡 …	
갈겨니	眼黑魚(눈검정어) 形與色 … 亦喜食②㉠蠅 釣用②㉢蠅爲餌	①추가: 凶
	眼黑魚(눈검정어) ①凶形與色 … 亦喜食②㉠蠅 釣用②㉢蠅爲餌	②정자: ㉠b蠅
격지	斤過木皮魚(씩적위) 形如鯽而黑 口②闊 …	①추가: 凶
	斤過木皮魚(씩적위) ①凶形如鯽而黑 口②闊 …	②속자: 闊과 闊
살치	箭魚(술치) 身扁 ②㉠晝黑 … 釣用②㉢蠅爲餌	①추가: 凶
	箭魚(술치) ①凶身扁 ②㉠晝黑 … 釣用②㉢繩爲餌 (즉蠅)	②오기: ㉠春→脊:㉢繩→蠅
돌고기	也回魚(야회어) 東北江湖中有之 … 大小無②定 炙牲③炙回 … ⑤味甚④㉠脆美④⑥最宜膾炙	①추가: 凶 ②속자: 乏와 定 ③변경: 炙→爇 ④누락: ㉠脆:㉢最 ⑤내용정리
	也回魚(야회어) ①凶東北江湖中有之 … 大小無②乏 炙牲③爇回 … ⑤味甚美宜膾炙	
돌고기	豚魚(돛고기) 頭小 …	
	豚魚(돛고기) ①凶頭小 …	①추가: 凶
참마자	迎魚(마지) 身圓 … 江湖川澤在處有之 好食③蠅及蚯蚓	①추가: 凶
	迎魚(마디) ①凶身圓 … 江②江湖川澤在處有之 好食③蠅及蚯蚓	②중복오기: 江 ③정자: 蠅
끄리	魚黍魚(치리) 背黃 … ②㉠唇作山字 形上下②㉢唇③凹凸 …	①추가: ㉠或呼:㉢魚喜:㉣凶
	魚黍魚(치리) ①㉠或呼 ①㉢魚喜 ①㉣凶背黃 … ②㉠唇作山字 形上下②㉢唇③凹凸 …	②양자오기: ㉠b唇→脣 ③오기: 凹凸→凸凹

	내 용	비 고
머들치	柳魚(머들치) 身圓 …	①추가: 囟
	柳魚(머들치) ①囟身圓 …	
	堰負魚(독지개) 身圓 … 上②昏短 下昏差長 … 常伏堤③a堰之下 … (④鱗)細如無 背有③b斑③f紋 … 石③c斑魚 … 白鱗黑③d斑 … 則劃然⑤深 … 其③c斑如虎文 … 石斑(⑥魚好)與蛇交 …	①추가: 囟 ②양자오기: 昏→昏 ③오기: a堤→堰; b(c)d(ce) 班:和漢三才圖會와 本草綱目の거→斑:f紋:和漢三才圖會의거→文 ④추가: 鱗:난,이후 삼입기술 ⑤고자: 심과 深 ⑥양자누락: 魚好:西陽雜俎 廣動植鱗介篇의거
	堰負魚(독지개) ①囟身圓 … 上②昏短 下昏差長 … 常伏堤③a堤之下 … ④鱗細如無 背有③b斑③f紋 … 石③c斑魚 … 白鱗黑③d斑 … 則劃然⑤심入 … 其③c斑如虎文 … 石斑(⑥魚好)與蛇交 …	
	袈裟魚(가스어) 咸陽志云 … 在咸陽府②南四十里 … 背有③文如袈裟 …	①추가: 囟 ②누락: 南 ③오기: 紋
	袈裟魚(가사어) ①囟咸陽志云 … 在咸陽府四十里 … 背有③紋如袈裟 …	
	菊息魚(국식어) 出朔寧②龍池 … 長不過一寸 … (①c自)羽化江 …	①추가: a囟:b身:c自:난 이후 삼입기술 ②약자: 龍→龍
	菊息魚(국식어) ①a囟出朔寧②龍池 … ①b身長不過一寸 … ①c自羽化江 …	
무 인 류		
메기	鮎(머억이) … 故謂之鮎 … ③緹冠秣縫 … ④a案次說 … 又襲韓保昇蜀本⑤艸 … 又④b按本草綱目云 …	①인용: 난호어목지 ②추가: 어명 ③오기: 緹 ④통용자: a(б)按과 案 ⑤정자: 草
	鮎(머억이)- ①蘭湖漁牧志 ②鮎 … ③緹冠秣縫 … ④a按次說 … 又襲韓保昇蜀本⑤草 … 又④b按本草綱目云 …	
가물치	鱧(가물치) … 故字①a从③a禮 … 故字②b从③b體也 … 故又有玄③c體烏③d體之④稱 …	①추가: 囟 ②정자: a(б)從 ③양자오기: a禮:本草綱目の거→鱧 b(d)c體:本草綱目の거→鱧 ④속자: 稱→稱
	鱧(가물치) ①囟鱧 … 故字②a從③a禮 … 故字②b從③b體也 … 故又有玄③c體烏③d體之④稱 …	
뱀장어	鰻鱺魚(비암장어) … 金絲(②鰻)鱺 … ③a鰻自於四五月生子 … 謂之針③b鰻鱺 … ④鰻於冬春蟄穴中 … 大者長或⑤二三尺 …	①추가: a囟:b어명 ②양자누락: 鰻: 本草綱目の거 ③오기: a鰻:本草綱目の거→鰻;b鰻鱺: 本草綱目の거→鰻鱺 ④변경: 二三→數
	鰻鱺魚(비암장어) ①a囟b鰻鱺魚 … 金絲(②鰻)鱺 … ③a鰻自於四五月生子 … 謂之針③b鰻鱺 … ④鰻於冬春蟄穴中 … 大者長或⑤數尺 …	
드렁호리	鱣(드렁허리) … 似鰻而(③細)長 …	①추가: a囟:b어명 ②양자누락: 細:本草綱目の거
	鱣(드렁허리) ①囟②鱣 … 似鰻而(③細)長 …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연구

	내 용	비 고
미꾸리	泥鰌(밧구리) … 而鮠鰌爲之制②皆 … 滑(③疾)難握 …	①추가: ①又:②어명
	泥鰌(밧구리) ①a又①b鮠 … 而鮠鰌爲之制②者 … 滑(③疾)難握 …	②변경: 皆→者 ③양자누락: 疾
황복	河豚(복) … 一名吹吐魚 … 有赤血③a肉者 … 喜食③b魚 … 大魚如鰓④鰓之類 …	①추가: ①凶:②어명
	河豚(복) ①a凶①b河豚 … 一名吹②吐魚 … 有赤血者 … 喜食 … 大魚如鰓④鰓之類 …	②변경: 吐→肚 ③누락: ①肉:②魚 ④오기: 鰓→鰓
동자개	黃頰魚(자가사리) … 所謂缺②a鰓 … 所謂黃②b鰓黃缺 …	①추가: ①凶:②無鱗
	黃頰魚(자가사리) ①a凶①b無鱗 … 所謂缺②a鰓 … 所謂黃②b鰓黃缺 …	②오기: ①a鰓
동자재	魚齒絲魚(동자기) 溪河中 … 口②闊 …	①추가: 凶
	魚齒絲魚(즈기) ①凶溪河中 … 口②闊 …	②속자: 闊과 闊
빙어	氷魚(빙어) 長僅②數寸 … 氷泮則不可見 … 又引和名③抄 … ④ 최佳 …	①추가: 凶 ②약자: 數→數 ③오기: 鈔:和漢三才圖會의 거→抄 ④양자오기: 최→最
	氷魚(빙어) ①凶長僅②數寸 … 氷泮則不可見 … 又引和名③鈔 … ④ 최佳 …	
즐공치	鱗魚(공치) 無鱗小魚也 … 又案王思義三才圖會云 …	①추가: 凶
	鱗魚(공치) ①凶無鱗小魚也 … 又②按王思義三才圖會云 …	②통용자: 按과 案
참중고기	僧魚(중곡이) 無鱗 … 山谷溪澗洿池中 … ②爲其 味淡與茹素無異也	①추가: 凶
	僧魚(중곡이) ①凶無鱗 … 山谷溪澗洿池中 … ②謂之 味之澹泊與茹素無異也	②변경
문절망둑	文鞭魚(그리치) 無鱗 … ②尾長而狹 …	①추가: 凶
	文鞭魚(그리치) ①凶無鱗 … 長而狹 …	②누락: 尾
밀어	鮠魚(밀어) 產漢江上流 …	①추가: 凶
	鮠魚(밀어) ①凶產漢江上流 …	
계 류		
거북이	龜(거북) … 列神靈攝②③寶文 … 龜④板必貴 …	①인용: 蘭湖漁牧志 ②약자: 寶와 宝 ③오기: 宝人은 寶文 ④이자: 板과 版
	龜(거북) ①蘭湖漁牧志 … 列神靈攝②③宝人 … 龜④板必貴 …	
자라	鰲(자라) ②其行整整 … 所謂河伯從事 … ③a褰圍在甲之四綠其或無③b褰 …	①추가: ①凶:②어명
	鰲(자라) ①a凶①b鰲 行整整 … 所謂河伯從事 … ③a褰圍在甲之四綠 其或無③b褰 …	②누락: 其 ③이자: ①a褰와 褰
鼈	鼈(큰자라)	①추가: ①凶:②어명
	鼈(큰자라) ①a凶①b鼈 …	

	내 용	비 고
계	<p>蟹(계) … ②a折③蟹有數種 … 謂之撥②b掉 … 兩螯至④a強 … 一曰擁②f劍 ⑤a一蟹大 … 似③蟹有毛而赤 … 一曰⑥a蠍 ④b朴 … ③b競博士作丸 … 浦海多③蟹 … 諸②g書校勘 … 螃③蟹者 … 恐是海中大③蟹者也 … ⑦a撥棹子者 … 後足濶④c蕩如②c棹 … 俗⑥c名申③蟹 … ⑥b蠍④c朴者 … 恐是今之中籠③蟹也 … 兩蟹俱小(⑧a耳) … 亦稱(⑧b爲)彭越 今俗名彭③蟹也 … 今有俗稱葛③蟹者 … 明⑥c化取之無②h筭 … 小於常③蟹 … 又有俗名栗③蟹者 … ⑨a案今以呂亢十二種 … 則蟾蚌⑤c蟛蜞⑥d蠍④d朴 … 蠃(⑧c削)⑥f蠍 … 以其後脚如②d掉也 … 所以異於衆③蟹也 … 則蟾蚌⑦b撥②c掉 … ④f蚌江也 ④g蚌或作④h蚌字似而訛也 … 蟲名並無③蟹類名 … ⑥g蠍似③蟹而大殼 … ③蟹⑩而殼⑩闊而多黃者 … 名⑥h蠍 … 是⑥i蠍或蠍之訛也 … 又⑨b案 … 石③蟹也 … (⑧d又)海中有紅③蟹 … 善④i花國有百足之③蟹 海中③蟹大如錢 … 又有小③蟹 ③c並不可食 ③蟹腹中有蟲 … 得絕大③蟹殼與螯足 … 疑卽紅③蟹也 … ③蟹奴蠃奴 亦③d往往有之 惟百足③蟹 … 未之見焉善④i花 ③蟹好旁行 … ⑤d謂之仄行 … 謂之螃③蟹行⑦i則其聲郭索 … 雌者膾③h圓 … ③蟹於八月 … 蓋③蟹於霜前 …</p> <p>蟹(계) ①a函①b蟹 … ②a浙③蟹有數種 … 謂之撥②b掉 … 兩螯至④a強 … 一曰擁②f劍 … 似③蟹有毛而赤 … 一曰⑥a蠍④b朴 … ③b競博士作丸 … 浦海多③蟹 … 諸②g說校勘 … 螃③蟹者 … 恐是海中大③蟹者也 … ⑦a蚩棹子者 … 後足濶④c蕩如②c棹 … 俗⑥c曰申③蟹 … ⑥b由易④c朴者 … 恐是今之中籠③蟹也 … 兩蟹俱小(⑧a耳) … 亦稱(⑧b爲)彭越 今俗名彭③蟹也 … 今有俗稱葛③蟹者 … 明⑥c大取之無②h筭 … 小於常③蟹 … ①c此也 … 又有俗名栗③蟹者 … ⑧a按今以呂亢十二種 … 則蟾蚌蟛蜞⑥d蠍④d朴 … 蠃(⑧c削)⑥f蠍 … 以其後脚如②d掉也 … 所以異於衆③蟹也 … 則蟾蚌⑦b蟹棹 … ④f蚌江也 ④g蚌或作④h蚌字似而訛也 … 蟲名並無③蟹類名 ⑥g蠍似③蟹而大殼 … ③蟹殼⑩濶而多黃者 名⑥h蠍 … 是⑥i蠍或蠍之訛也 … 又⑨b按 … 石③蟹也 … (⑧d又)海中有紅③蟹 … 善④i花國有百足之③蟹 … 海中③蟹大如錢 … 又有小③蟹 ③c並不可食 ③蟹腹中有蟲 … 得絕大③蟹殼與螯足 … 疑卽紅③蟹也 … ③蟹奴蠃奴 亦③d往往有之 惟百足③蟹 … 未之見焉善④i花 ③蟹好旁行 … 之仄行 … 謂之螃③蟹行⑦i之其聲郭索 … 雌者膾③h圓 … ③蟹於八月 … 蓋③蟹於霜前 …</p>	<p>①추가: a函;b어명;c此也</p> <p>②변경: a折→浙;bcd掉(흔들도)→棹(노도);f劍(둔할일)→劓(칼검)g書→說;h筭→算;①團→圓</p> <p>③이자:蟹와蟹 29번;b競과競;c位과並;d往往과往往</p> <p>④양자오기: a強,兩航雜錄의거→蠃;bcd朴,兩航雜錄의거→樸;c蕩:星湖僊說의거→薄;fg蚌-蚌:h蚌-蚌;i花,西陽雜俎의거→苑,本草綱目은善化</p> <p>⑤누락: a一蟹大;b名;c蟛蜞;c謂</p> <p>⑥오기: ad蠍은竭;b蠍은由易;c化>大;c曰,星湖僊說의거>名;f蠍(벌레이름짐)은蠍(벌레이름짐);gh蠍(벌레이름짐)은蠍(계절);i蠍은蠍(박쥐직);①則→之</p> <p>⑦약자: ab발→撥</p> <p>⑧양자누락: a耳;b爲,星湖僊說 의거;c削;d又:本草綱目 의거</p> <p>⑨동용자: ab案과按</p> <p>⑩삭제: 而</p> <p>⑪추가: 濶</p>
	<p>蚌(가장자근조기) … 皆②有之 … 生江浦川澤③中者 …</p> <p>蚌(가장자근조기) ①a函①b蚌 … 皆之 … 生江浦川澤③間者 …</p>	<p>①추가: a函;b어명</p> <p>②누락: 有</p> <p>③변경: 中→間</p>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의 비교연구

	내 용	비 고
	馬刀(물십조기) 一名馬蛤 … 馬刀(물십조기) ①㉠一名馬蛤 …	①추가: ㉠
	蜆(가막조기) 亦蚌之小者也 … 蜆(가막조기) ①㉠亦蚌之小者也 …	①추가: ㉠
우렁이	田贏(울렁이) 贏 … 田贏(울렁이) ①a㉠贏 … ①b田贏 …	①추가: a㉠:b어명
달팽이	蝸贏(달팽이) … ②産川溪中 … 蝸贏(달팽이) ①a㉠①b蝸贏 … ②彦川溪中 …	①추가: a㉠:b어명 ②오기: 彦은 産
총	51종 어류(총55종 중 4종 제외)	280개 문체

